

# 01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19장 □ 20장 □ 21장 □ 22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Date / /

**말씀 창세기 20:10-12**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 믿음을 세상에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적으로 행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저들인데 오히려 제대로 사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저들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피해 볼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상황도 지금과 똑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고, 그가 도착하는 곳에는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고 살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다. 아내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서슴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받을 해코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사 را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주실까요?

사 را를 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 라가 바로나 아비멜렉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 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해코지를 받을까 봐,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사 را를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세상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 2 나의 믿음을 세상에 내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1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23장 □ 24장 □ 25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Date / /

**말씀 창세기 24:10-12**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곁에 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다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 주님이 기뻐하는 종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이시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다워야 합니다. 종이 종답지 않게 행동하면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이 종다운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다운 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였습니다.(창 24:2).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많은 종 중에서 특별히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 그를 얼마나 믿었던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고르는 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를 그렇게 신뢰하였는지가 밝

히 드러납니다.

먼저 이 늙은 종은 받은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습니 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부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갔던 나홀성까지의 거리는 약700km 정도입니다. 낙타 열 필에 짐을 가득 싣고서 가려면 약 한 달 정도는 족히 걸릴 만 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이 먼 거리를 불평 없이 갔습니다.

게다가 이 종에게는 그 주인의 온갖 좋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 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장 12절을 보면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온 늙은 종이 잠시 쉬지도 않고 곧바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쉴 곳을 먼저 찾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늙은 종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불평하지 않고, 탄마음 먹지 않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만한 천국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눔 2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종이 되기 위한 결단을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1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26장 □ 27장 □ 2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Date / /

**말씀 창세기 26:28-29**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 재물보다 중요한 평안의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받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창 26:2)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아버지와 같이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향하던 길을 돌려서 원래 그가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백배의 결실을 얻었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창 26:12).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은 행복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랄 목자들과 다투며 살아야 했던 그 상황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다툼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니 드디어 다툼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백성들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평안의 복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무를 때, 곧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큰 복인 평안을 누리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2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백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1

오늘성경통독 창세기 29장 □ 30장 □ 31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Date / /

**말씀 창세기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 잘못된 사랑에 목매지 마세요



레이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의 동생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던 반면에 레아는 외모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이 약하고”라는 말은 눈으로 볼 때 강점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창 29:17). 외적으로 보이는 요소에서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반은 그런 레아가 항상 염려되었습니다. ‘저래서 시집이나 잘 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던 아픈 손가락 같은 딸이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작은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던 야곱에게 몰래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명령에 레아는 왜 순종했을까요? 그녀 역시 야곱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아내가 되면 그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 몰래 야곱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레아는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라헬 못지않게 야곱을 사모하는데 라헬만을 사랑하는 야곱이 너무나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날마다 ‘이렇게 하면 야곱이 나를 사랑할까? 저렇게 하면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할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

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이 그녀를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아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계속 주신 이유는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야곱이 라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다를 낳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던 그 사랑을 돌려서 정말로 사랑해야 할 존재가 따로 있음을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잘못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 29:35)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사랑에 목매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내가 얻으려고 애썼던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나눔 2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존재들)을 써보고 순위를 정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2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19장 □ 20장 □ 21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Date / /

**말씀 레위기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 무엇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거룩하다”라고 할 때 ‘카다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우리도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삶은 자연히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 가를 등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레 19:27)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 스타일과 수염에도 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모든 항목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삶의 모든 항목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밥을 먹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잠을 자는 모든 삶의 사소한 행동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02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22장 □ 23장 □ 2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Date / /

**말씀 레위기 24: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 등잔대의 불이 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을 통해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잔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금촛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메노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그 정면에 놓인 진설병을 비춥니다. 등잔대가 비추고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불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불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등잔대의 불빛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생명력이 멈춰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성령은 말씀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불, 성령 충만의 불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들려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나눔 1 나는 오늘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나눔 2 오늘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2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25장 □ 26장 □ 27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Date / /

**말씀 레위기 25:13-16** 이 회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회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숨 결고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이 회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년이 되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가 싫고, 땅과 소유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회년을 시행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욥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욥 1:21)라는 말이 이루어질 그 순간,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회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살던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나’도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레 25:10).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년’이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팔든지 회년이 가까우면 값을 적게 매기고 회년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매기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회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회년이 되었을 때 억울해서, 속상해서 울부짖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히 계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회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진정한 회년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소유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소유라도 어쩔 수 없이 놓아주어야 할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펼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다 놓아주어도 이것만은 못 놓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가 우리 주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02

오늘성경통독 민수기 1장 □ 2장 □ 3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Date / /

**말씀 민수기 2: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더 고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에 나섰는데 광야의 메마르고 황량한 환경과도 싸워야 했고 그들을 공격해 오는 적들과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들과도 싸워야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적들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싸워야 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딱 한 가지 싸움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민 2:2).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방이 뚫려 있는 광야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에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깥쪽, 광야를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등을 맞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향하여 진을 치지 말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니 그 성막,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를 걸으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등 뒤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적들의 함성이 들릴 때도, 내 삶이 고되고 힘들어 목마름이 극에 달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며 오직 주를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승리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03

오늘성경통독 신명기 32장 □ 33장 □ 3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Date / /

**말씀 신명기 34:4-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충성된 종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자기 민족과 함께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담담하게 느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니”(신 32:49-5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기가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담하게 느보산에 오릅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 산을 올라 그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 모세를 “여호와와 종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신 34:5).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

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주인을 버리고 도망기는 자는 진짜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도 그 주인에게 내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자기 주인의 손에 맡기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죽음까지도 맡겨 드릴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충성된 종 모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 하고 인생을 끝마치게 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서자 그의 눈을 열어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네벳까지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남은 아쉬움을 풀어주시고 모세를 데리고 가셔서 직접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세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주의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눔 1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나눔 2 내 마음속에 주님께 서운하거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3

오늘성경통독 여호수아 1장 □ 2장 □ 3장 □ 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Date / /

**말씀 여호수아 2:18, 21**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 믿음의 증표를 매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수 2:9-10).

여기에서 라합은 “내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다 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로만 표현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붉은 줄을 증표로 삼아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이루어질 때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행위를 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창에 누가 보아도 훤히 보이는 믿음의 증표인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라합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가 아니라 정탐꾼들이 그 집을 빠져나가자마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입니다(수 2:21).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가 밤중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니 정탐꾼들을 돌려보내고 곧바로 믿음의 증표를 내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붉은 줄이 있는지, 내 삶에 믿음의 증표가 매달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다가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 03

오늘성경통독 여호수아 5장 □ 6장 □ 7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Date / /

**말씀 여호수아 5:2-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정찰을 마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일곱 부족에게 모두 전해졌습니다(수 5:1).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영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거의 자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하고 왔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적진에 들어왔고 가나안 일곱 부족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언제든 그들을 공격해서 무찌를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러니요? 아마 사람들은 “그 옛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당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저희보고 지금 그들처럼 죽으라는 겁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렇게 행했던 이유를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수 5:7).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써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14)라고 하나님께서 선언 하셨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돕고 이삭을 돕고 야곱을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도울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여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죽는 길’처럼 보였던 할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죽는 길로 가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길은 분명히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03

오늘성경통독 여호수아 8장 □ 9장 □ 10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Date / /

**말씀 여호수아 10:40-42**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 주님은 언제 싸우시는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두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말없이 빙빙 돌기만 하는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며 돌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 2,3천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그 패배의 이유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아간의 범죄가 그들 안에 있었기에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번의 전투로 인하여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기준을 확정한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지켜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투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기준이 아모리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도 분명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수 10:40).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수 10:42)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두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에 자리 잡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단번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 03

오늘성경통독 여호수아 11장 □ 12장 □ 13장 □ 1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Date / /

**말씀 여호수아 14: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 마지막 계산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목조목 자신이 계산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계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산은 그 땅이 이미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명분입니다. 모세 때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9)라고 약속했던 명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은 자신이 그 땅을 정복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수 14:10-11). 갈렙은 지금 “내가 아직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면, 명분도 있고 힘도 있으면 당연히 그가 원하는 일을 행해도 되고 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계산은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를 계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12)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계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헤브론들을 정복해 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내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싶은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나눔 2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비, 계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4

오늘성경통독 사무엘하 5장 □ 6장 □ 7장 □ 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Date / /

**말씀 사무엘하 6: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나서 기쁨에 찬 마음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울의 딸 미갈, 곧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던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뛰놀았던 것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삼하 6:20).

미갈의 이 말은 그녀가 다윗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갈이 바라보기에는 다윗이 춤을 춘 것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었고 다윗이 기뻐 뛰놀았던 것도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미갈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 6:21)

다윗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 앞에서 뛰노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말입니다. 내가 춤을 추고 뛰놀았던 것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갈은 사람들 중심으로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누구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 뛰며 춤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속 깊은 아픔들을 토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나요?

나눔 2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대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4

오늘성경통독 사무엘하 9장 □ 10장 □ 11장 □ 12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Date / /

**말씀 사무엘하 11:24-25** 활 쓰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 어떤 자리를 사모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결국 우리아는 맹렬한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삼하 11:25).

다윗은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괜찮아,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내가 그를 죽게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삼하 12:10).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라고 말하면서도, 그 칼이 자기 자신을 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아를 삼킨 그 칼이, 이제는 너와 네 집을 삼킬 것이다” 맞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 사람, 저 사람에 나 역시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칼자루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칼자루가 나에게 휘둘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시 140:11).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아에게 포악하게 행했던 그의 행동이, 곧바로 그와 그의 집에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킵니다. 내가 칼로 남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남도 나를 칼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다른 이가 나에게 복수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칼을 휘두르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리는 칼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칼자루를 잡는 자리를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칼자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 주님 손에 내 인생의 칼자루를 맡겨드리는 그 자리가 실수가 없고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눔 1 다른 사람을 상하고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눔 2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잘못을 했던 일이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4

오늘성경통독 사무엘하 13장 □ 14장 □ 15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Date / /

**말씀 사무엘하 13: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 마귀가 주는 마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집에 정말로 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버리고 버려다 기회를 타서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삼년 후에 압살롬은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으로 시작된 다윗의 죄가 자신과 그의 가족,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큰 풍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작은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넣어주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죄를 행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넣어줘서 끝내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요

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삼하 13:3). 그는 다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괴로워하던 암논에게 악한 방법으로 다말을 겁탈할 것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랐고 결국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암논이 죽자 그 요나답이 이번에는 다윗 옆에서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삼하 13:32). 요나답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다라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답도 다윗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충동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답이 심어주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요나답의 그 말을 듣고도 압살롬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삼하 13:39).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붙잡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을 분별하여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오늘 내 안에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나눔 2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 04

오늘성경통독 사무엘하 16장 □ 17장 □ 1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Date / /

**말씀 사무엘하 18: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린 채로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부하들을 내보내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삼하 18:5)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고 바로 그의 심장을 찢어서 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과 요압, 두 사람의 행동 중에서 무엇이 맞는 행동입니까? 사실 압살롬은 다윗에게나 요압에게나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인 파렴치한 아들이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방탕하기 그지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반역하여 군사를 일으킨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또 압살롬은 요압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타일러서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살던 압살롬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부름에 요압이 달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들을 풀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밭에 불 지른 죄가 큼니까? 아니면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다윗을 반역한 죄가 큼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지은 죄가 더 큼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하고, 요압은 “내가 그를 죽이기를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울고, 요압은 그렇게 오열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분을 내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면 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품어 주십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면 작은 잘못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죄의 값을 피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눔 2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